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1월 14일

뉴욕주 세금 개혁 및 공정성 위원회, Cuomo 주지사에게 최종 보고서 제출

조세법을 더 간편하고 공평하게 제정하여 가정과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세금 개혁 및 공정성 위원회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위원회 보고서는 단순성, 공평성, 경쟁력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와 함께 기존 조세 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는 수익 중심 정책 옵션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greenislandandreportandappendicies.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공동 의장 H. Carl McCall과 Peter J. Solomon, 위원회 멤버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로 선출된 이후 우리 행정부는 뉴욕의 부정적인 조세에 대한 관점을 뒤집어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오늘 받은 이 보고서는 뉴욕의 낡고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조세법을 단순화하고, 전국의 가정과 기업들이 안고 있는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향하는 다른 단계를 보여줍니다.”

뉴욕주 세금 개혁 및 공정성 위원회는 조세법의 허점을 제거하고,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세금 징수 및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여 뉴욕주 조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고려에 대한 옵션이 될 5개의 수익 중심 개혁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 저소득 및 중산층들의 세금 경감 및 전반적인 상속세 감면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판매세를 현대화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판매세 면제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뉴욕의 저소득 및 중산층에게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진보적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조세 의무를 가진 뉴욕 시민의 73%에게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세법이 중산층 납세자를 대상으로 잘못 제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기업이 21세기 경제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주의 기업 및 은행 프랜차이즈 세법을 개혁합니다. 위원회는 뉴욕주의 기본 회사 프랜차이즈 조세 구조가 매우 오래되었고, 과도할 정도로 복잡하고 적극적인 탈세 기법에 취약하다고 주장합니다. 납세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도 다르게 취급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이 뉴욕에서 기업 활동 성장에 불이익을 안겨줍니다. 기업 세액공제 평가는 매년 자사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세 체계가 지방 자치 단체, 기업과 주택 소유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산세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를 검토합니다. 뉴욕의 재산세 관리 체계는 전국 50개 주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기존 재산세 관리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기업에게 규제 준수 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합니다.
- 뉴욕에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규제 준수를 완화하기 위해 조세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위원회는 세법의 많은 부분이 불필요하게 부담스럽고 구식이거나 개혁하기에 이르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 공급업체(예: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자)는 다른 소매업체와 같은 분기 일정에 판매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마지막 판매가 완료된 후 즉시 판매세 환급을 받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만 달러의 수익을 차지하는 약 200여 명의 납세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익의 제한된 일부에 대한 기존 세금 등 짚은 세액 징수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잠재적 개혁은 앞으로 수백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에 줄을 서지 않아도 되게 할 것입니다.

공동 의장 H. Carl McCall은 “이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준 주지사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또한 뉴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가 이루어 놓은 엄청난 발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뉴욕의 재정은 크게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었지만, 장기적 경제 변형은 조세법과 세금 경감의 개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동 의장 Peter J. Solomon은 “체계를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노후된 세법을 현대화함으로써 뉴욕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옵션이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 정책 연구소 부소장 겸 수석 경제학자인 James Parrott은 “위원회의 주요 판매세 제안은 의류 판매세 면제의 소멸과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대한 소득세 공제의 상쇄를 연결하는 진보적인 미덕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중심 재산세 경감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ames W. Wetzler 전 뉴욕 세무 및 재정부 국장은 “조세 개혁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게 해주고, 체계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뉴욕의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Dall W. Forsythe, NYU Wagner School 겸임 교수 겸 전 뉴욕주 예산 담당 이사는 “기존 체계는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기본 세무 정책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은

조세법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으나 위원회의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McCall과 George Pataki 총재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뉴욕주 세금 경감 위원회와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세금 경감 위원회는 뉴욕주 재산과 기업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지사의 2014 State of the State 메시지에서 고려 사항에 대한 권고 내용을 제공합니다.

2011년에 취임한, Andrew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뉴욕 시민들의 평균 세액을 더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요 개혁은 모든 뉴욕 시민들이 주지사가 취임할 당시보다 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체 누진율을 높이기 위해 뉴욕주의 개인 소득 세법에 발효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1년 뉴욕주 최초의 재산세법을 제정하여 상속세의 높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세법은 교육세와 지역 상속세를 매년 2%까지 또는 인플레이션 성장률 중 가장 낮은 쪽을 기준으로 올릴 수 있게 제한하며 면세 혜택 범위는 매우 제한됩니다.

뉴욕주 세금 개혁 및 공정성 위원회 공동 의장

H. Carl McCall, 뉴욕주립대 이사회 위원회

의장 Peter J. Solomon, Peter J. Solomon Company, LP, 창립자 겸 의장

뉴욕주 세금 개혁 및 공정 위원회 멤버

J. Pat Barrett, 올림픽 지역 개발국 회장

Dall W. Forsythe, 전 뉴욕주 예산국 이사

David M. Schizer 컬럼비아법대 Frankel, 전 뉴욕시 재무부 위원

Thomas H. Mattox, 뉴욕주 세무 및 금융부 국장

James Parrott, 재정 정책 연구소 부국장 겸 수석 경제학자

Alan D. Schwartz, Guggenheim Partners 집행 위원장

James W. Wetzler, 전 뉴욕주 세무 및 금융부 국장

Robert G. Wilmers, M&T Bank, 회장 겸 CEO

Deborah C. Wright, Carver Bancorp, Inc. /Carver 연방 은행 회장 겸 CEO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